

## 전북·충남지역 거주자의 남아선호 현상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

김 용 미<sup>†</sup>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 A Study on the Dynamics and the Related Factors of Son Preference in Chon-buk and Chung-nam Area

Yong-Mi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and the reasons of son preference,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lated variables among middle-and old-aged Koreans in Chon-buk and Chung-nam area. Subjects were 487 parents of high school girls(243 fathers and 244 mothers), with a mean age of 45.7 years.

It was revealed that more than a half of the respondents(52.2%) preferred 'a son' for the first child, followed by 'either sex'(32.6%) and 'a daughter'(14.8%). For the second child, a son was preferred most(43.7%), followed by 'a daughter'(31.4%) and 'either sex'(23.4%). As the reasons of son preference, 'to continue tradition and name of family' marked the highest score (3.42), followed by 'parents prefer son for various reasons'(3.37), 'should have at least one son'(3.32), and 'feel obliged to produce a son for in-law's sake'(3.06). It appeared that sociocultural background was more important for son preference than individual, economic factors.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a strong son preference were the number of sons at the present, son preference for the first child, parent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toward children, and income. Suggestions were made in regard to efforts for gender equality in family and society,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and population education.

\*이 연구는 1999학년도 원광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국제노년학대회 아·태지역학회(1999. 6. 8~11.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

344-2 Shinyong-Dong, Iksan-City, Chonbuk 570-749, Korea

Tel : 063-850-6589, Fax : 063-850-7306

E-mail : ymkym@wonkwang.ac.kr

## I. 서론

자녀의 특정한 성(性)에 대한 부모의 선호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 문제는 인구학, 사회학, 인류학, 보건학, 여성학, 아동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남한)는 특히 남아선호도가 높은 나라로서 인도, 중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김옥춘, 1996; 김용미, 1998; Edlund, 1999).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인데 더해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다자녀(多子女)와 남아선호가 매우 강한 나라였다. 특히 근래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출산율이 낮으면서 남아선호도가 높은 나라로서 매우 심각한 인구학적,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여아를 골라 낙태시키는 방법으로 출생성비가 지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Lee, 1995; Park & Cho, 1995). 부모가 특정한 성을 가진 자녀를 선호한다는 것은 성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출생과 영아기에 여아를 차별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Cain, 1991; Lee, 1995; Mason, 1993).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과 성차별의 원인은 가부장적 친족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남아선호는 조선시대 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족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에는 딸은 물론 사위, 외손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고 재산 상속도 남녀가 동등하게 물려받았다(최재석, 1983).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숙종 이후 유교가 확산되고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장자상속제가 확립되면서 남존여비와 남아선호사상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홍택, 1986).

이러한 남아선호 현상이 최근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각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즉 1985년경 이후부터 남녀아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평균 출생성비는 108.4(1997년)부터 116.5(1990년) 사이에 걸쳐 있다.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경우 104.1(1989년)에서 108.5(1990년) 사이에 걸쳐있고 둘째아의 경우 106.4(1997년)에서 117.1(1990년) 사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셋째아 이상의 경우 최저 136.1(1997년)

에서 208.1(1993년)사이로 지극히 왜곡된 출생성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9). 세계의 평균성비가 106 수준임을 감안해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성비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 실감케 한다. 출생성비는 1999년 현재 109.6으로 나타났으나,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43.1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14.5), 대구(113.0), 경북(112.8)의 출생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이와 같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의료보건적, 교육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Park & Cho, 1995). 가까운 예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아부족으로 인해 남아들끼리 짝을 지어 앉거나 체육이나 학습활동 중에 여자 짝이 없는 남아가 남아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1/3이상이 남아선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여러 번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김정련, 1993). 또한 장기적으로는 1985년생 남아들이 배우자를 찾게되는 2010년 이후부터 신부감이 부족하여 신부쟁탈전이 벌어지리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김옥춘, 1996; 김용미, 1998).

남아선호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 사회학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내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남아선호 현상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가족환경의 영향,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들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북·충남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남아선호수준을 알아보고 남아선호의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남녀별 성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남아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전북·충남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 연구문제 1. 첫째, 둘째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남아선호의 이유는 무엇이며,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남아선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은 인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남아선호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 때문에 남아선호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 인도, 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외국 연구를 고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성비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는 1959년에 발표되었다(Kang & Cho, 1959). 이 연구에 의하면 1958~59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15이고 출생 순위가 짝일수록, 그리고 산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생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성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출산률이 급격히 감소한 1980년대 중반부터였고, 1990년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출생성비가 급증한 것은 태아의 성 식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들이 있다(김옥춘, 1996).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강한 남아선호관이고, 둘째는 태아 성감별과 임신중절이라는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 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해 지고 이러한 장비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같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조남훈, 서문희, 1994).

우리나라의 출산력 조사에는 자녀의 성 선호와 선호 자녀 수를 비롯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왔다(서문희, 1992; 조남훈, 서문희, 1994).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관에 있어서 대체로 경제적 요인보다 상징적, 심리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공세권외, 1992). 또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부인들의 남아선호가 더 높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남자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식, 1988; 이흥탁, 1987).

아들 선호의 이유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계 계승(42.2%), 심리적 든든함(34.2%), 가정의 조화(16.9%) 순으로 나타났고 노후의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세권 외, 1993).

가계계승이나 노후의존이 전통적인 이유라면 가정의 조화는 비교적 근대적 가치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아선호의 이유가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적으로 노후보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는 아직도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려는 전통적 의식이 남아있어서 남아선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문희, 1992)

동아시아 국가에서 보여지는 높은 남아선호도에 대해 두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남자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부모의 노후의지를 위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Cain, 1981). 이것은 남아선호 현상에 대한 사회적, 거시적 수준의 접근으로서 성별에 따른 사회계층과 같이 가부장적 사회조건에서 아들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계층은 모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후보장은 사회적 수준에서 가부장적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Lee, 1995). 두 번째 주장은 남아선호의 이유가 경제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Arnold & Kuo, 1984; Vlassoff, 1990). Arnold와 Kuo에 따르면,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성역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문의 이름을 전승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딸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사와 육아에 도움이 되고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 관점은 남아선호문제에 대한 미시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남아선호국가인 한국과 여아선호국가로서 자마이카를 비교한 Lee(1995)의 연구는 한국의 아들의 가치와 자마이카의 딸의 가치를 비교했다. 한국의 경우 가계를 유지하는 책임이 주로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남자의 의무와 권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반면 자마이카는 모계사회이므로 여자 가족간의 상호원조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아들과 자마이카의 딸은 부모에 대해 서로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정한 성의 자녀 가치가 다른 쪽보다 더 높은 가족체계 행동의 내부적 과정은 각각 다른 가족 전략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남아선호국가로 분류되는데 반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나라로 필리핀을 꼽을 수 있다. 김용미(1998)는 필리핀 기혼 여성의 남아선호도와 관련변인을 연구했다. 남아선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거시적 접근을 하는데 비해 이 연구는 남아선호에 관련된 가치관, 태도, 선호도 등을 개인적 특성, 가족배경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첫 자녀의 성 선호는 반수 이상(54.5%)이 아들이었으나, 둘째 자녀의 성 선호는 반수 가량(44.7%)이 딸로 나타났다. 남아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했고 첫 자녀로서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력한 남아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필리핀 여성과 원주민 필리핀 여성을 비교한 결과, 중국계 여성들은 남아선호의 이유로 가계 계승과 명분을 중시하는 점이 두드러졌다. 반면 원주민 집단은 중국계 집단에 비해 둘째 자녀로서 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아들·딸에 대해 차별없는 평등한 양육과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와 출산력을 조사한 Larsen, Chung, & Das Gupta(1998)의 연구에서는 1991년도 출산과 가족보건조사자료를 사용해서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근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남아선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산률이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Larsen 등의 연구 결과 일단 아들을 출산한 여성은 후속 출산확률이 줄어들고 다음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터울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패턴은 1자녀, 2자녀, 3자녀 출산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며, 다산한 여성일수록 이 패턴이 더욱 두드러졌다. MANOVA 결과 남아선호, 가부장제, 근대화가 2번째, 3번째, 4번째 임신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남한의 남아선호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Goodkind(1999)는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와 1998년 아동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남아선호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북한에는 여자 태아에 대한 차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에 태아성감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영아 사망률이나 영양실조 통계에서도 남녀 차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여기에는 특별한 과학 기술이 개입되지 않는다.). 남아선호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는 분단 후 북한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주의 운동에는 남아선호의 기저에 깔린 전통적 유교 이념에 대한 도전의 측면이 있다. 북한과 비슷한 정치적 변화를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중국, 베트남 등)에는 남아선호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도, 중국, 파키스탄과 같이 남아선호가 강한 나라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인도인의 남아선호가 성비와 결혼패턴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연구한 Edlund(1999)는 높은 남아선호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성비 불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남아선호도는 또한 배우자간의 연령차이, 여성의 상향 결혼, 카스트 내의 동족결혼, 사촌간의 결혼과 같은 결혼패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뱅갈지방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 선호와 불안감을 연구한 Yadav와 Badari(1999)는 임신부의 아들 선호도가 불안의 원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2명의 자녀를 출산한 203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출산 자녀의 성에 따라(2남, 1남 1녀, 2녀) 임신부의 불안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출산 자녀가 2녀일 경우 64%의 임신부가 태아의 성이 남아하기를 원했고, 반대로 2남일 경우에는 6%의 임신부가 태아가 딸이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인도와 인접한 파키스탄의 남아선호와 출산행위의 관계를 연구한 Hussain, Fikree, & Berendes(2000)의 연구에서 생존자녀의 성이 출산 행동에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15~49세 사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990~91년과 1995년에 실시한 두 차례 인구조사결과를 기초로 자녀의 성이 도시빈민여성들의 출산의도와 후속행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생존 남아의 수가 많을수록 후속임신을 원하지 않았고, 생존자녀의 성은 후속 출산 및 피임행동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적인 남아선호보다는 오히려 "1남 이상, 적어도

1녀”를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남아선호에 관련된 최신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의 인구학적,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Thomas와 Mu(2000)는 자료를 수집했다. 고도로 개발된 시추안과 장수지역에 거주하는 30~39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임신과 피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접을 통해 임신의 동기 등을 파악했다. 이 연구결과, 이상적 가족의 크기와 기출산 자녀의 성에 비추어 볼 때, 약한 남아선호경향이 나타났다. 소자녀와 약한 남아선호경향은 이 지역에서 처가결혼, 부락내혼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양육 특히 아들에 대한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소자녀를 선호하고 남아선호가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이유는 자녀의 교육비도 일부 부담이 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결혼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전북과 충남지역의 중소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487명(전북 익산 150명, 정읍 100명, 충남 서천 100명, 장항 150명)의 성인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243명, 여자는 244명이었다. 처음에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9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8.4%). 이 가운데 응답이 과다하게 누락되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5부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 대상은 487명이 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서 선행연구(김용미, 1998)에서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부모의 양육태도, 성 차별적 사고방식,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자녀의 성 선호에 대한 문항, 남아선호를 측정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남아선호를 측정하는 도구(Son Preference Scale, 이하 SPS)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아를 선호하는 이유, 태도, 가치관 등을 서술하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점('매우 반대')부터 5점('매우 동의')까지 답할 수 있게 되어있다. SPS의 점수가 높을수록 남아선호도가 높으며, 최저 14점에서 최저 70점까지 얻을 수 있다.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대치측정은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태도, 교육적 및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기대치, 남녀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점('아들 중시')부터 5점('딸 중시')까지 점수를 주게 했다. 신뢰도 계수는 .62로 나타났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지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및 가정내 지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였다. 1점('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낮다')에서 5점('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다')까지 점수를 주었다.

###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1998년 12월 1~3주 사이에 이루어졌다. 전북과 충남지역의 도시와 농어촌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했다. 학생들은 각각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반반씩 나누어 표시된 설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완성하게 한 후 2~3일 내에 교사에게 제출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연구대상자는 487명의 남자(n=243)와 여자(n=244)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36세부터 68세에 걸쳐 있었는데 평균연령은 45.3세였다. 이 가운데 40대가 제일 많았고(356명, 73%), 다음으로 50대(80명, 16.4%), 30대(42명, 8.6%)의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143명, 29.4%), 불교(130명, 26.7%), 천주교(42명, 8.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반수 가까이로

(225명, 46.2%) 제일 많았고, 평균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2)과 고등학교 졸업(3)의 중간수준인 2.65로 나타났다. 직업은 Hollingshead's Occupational Scale에 따른 구분에 의해 6단계(기술직, 소상인)가 94명(19.3%), 5단계(영업직, 소농(小農))가 93명(19.1%)로서 제일 많았고 8단계(관리직, 중기업주)도 90명(18.5%)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200만원 사이'(182명, 37.5%), '100만원 이하'(181명, 3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만~300만원 사이'(65명, 13.3%)로 나타났다. 현재 응답자들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살펴보면 아들은 '1명'(296명, 60.8%)이 가장 많았고, '0'(124명, 25.5%), '2명'(59명, 12.1%)의 순서였다. 현재 자녀수 중 아들은 평균 .91명으로 나타났다. 딸은 '1명'(183명, 37.6%), '2명'(175명, 35.9%)이 제일 많았고 다음은 '3명'(83명, 17.0%)의 순서였다. 평균 딸의 수는 2.00명으로 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n=487)

변 수	구 분	n	%
성 별	남자	243	49.9
	여자	244	50.1
연 령	30代	42	8.6
	40代	356	73.0
	50代	80	16.0
	60代	3	0.6
종 교	기독교	143	29.4
	불교	130	26.7
	천주교	42	8.6
	기타(무응답 포함)	167	35.3
교육수준	1. 초등학교	61	12.5
	2 중학교	137	28.1
	3. 고등학교	225	46.2
	4. 대학교	50	10.3
	5. 대학원	11	2.3
	기타	3	0.6
직 업	0. 기타(주부포함)	138	28.3
	1. 품팔이, 일당노동자	5	1.0
	2. 미숙련 노동자	7	1.4
	3. 기계·기술노동자	4	0.8
	4. 숙련기술노동자, 소작인	18	3.7
	5. 영업직, 소농	93	19.1

변 수	구 분	n	%
직 업	6. 기술직, 소상인	94	19.3
	7. 소기업주, 농장주	17	3.5
	8. 관리직, 중기업주	90	18.5
	9. 대기업임원, 전문직	21	4.4
월평균 수입	1. 100만원이하	181	37.2
	2. 101-200만원	18	37.5
	3. 201-300만원	65	13.3
	4. 301-400만원	9	1.8
	5. 401-500만원	3	0.6
	6. 501만원 이상	2	0.4
	기타(무응답 포함)	45	9.2
현재자녀수	0명	124	25.5
	1명	296	60.8
	2명	59	12.1
	3명	6	1.2
	4명	1	0.2
	기타	1	0.2
현재자녀수	0명	4	0.8
	1명	183	37.6
	2명	175	35.9
	3명	83	17.0
	4명	25	5.1
	5명	12	2.5
	6명	4	0.8
	기타	1	0.2

주1. Hollingshead's Occupational Scale

## 2. 자녀의 성 선호도와 부모의 성별차이 비교

연구 대상자의 남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첫 자녀의 성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들 선호'가 254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 성이나 무방하다'고 답한 사람이 159명(32.6%)이었으며 '딸 선호'는 72명(14.8%)에 불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수 이상이 단연 첫 아들을 원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강한 남아선호의 일면이 다시 확인된 점과, 아들-딸 어느 쪽이나 무방하다고 답한 사람도 1/3이나 되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반면 첫 자녀로서 딸을 선호하는 사람은 15% 미만으로서 옛 속담에 '첫 딸은 살림밀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첫 자녀의 남아선호 비율은 딸 선호에 비해 무려 3.5배에 달하고 있다.

둘째 자녀의 성 선호 결과를 보면 '아들 선호'가 여전히 으뜸이며(213명, 43.7%) 다음으로 '딸 선호'(153명, 31.4%) 뒤를 잇고 있으며 '어느 성이나 무방하다'고 답한 사람이 114명(23.4%)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들선호가 전체의 반수에 가까울 만큼 여전히 강세인 점과, 또한 딸 선호 비율이 첫째의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녀의 성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응답이 첫 자녀의 경우 32.6%, 둘째 자녀의 경우 23.4%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도가 강한 나라에서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도가 높은 사회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거주자들이 '어느 성이나 무방하다'고 답한 비율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이 결과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면 즉, 응답자들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변화의 추이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답자들의 반응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성의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결과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아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SPS에 나타난 평균 점수와 각 항목별 부모의 성별 차이가 <표 3>에 제시되었다. SPS의 14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집안의 전통과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로서 3.42였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했다'(3.37)였다. 세 번째는 '집안에 다 없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3.32)였고 다음은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아야 사돈 집에 몇몇할 것 같다'(3.06)이었다. SPS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위의 4항목들은 공통적으로 남아 선호에 있어서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뭔가 뚜렷하게 현실적 이익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막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볼 때, 체면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남아선호의 배경으로 나타났다. 남아 선호의 현실적 이유로서 '노후에 의지하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평균 2.90으로 나타났다.

SPS 문항별 점수를 남녀 성별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집안의 전통과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가

<표 2> 부모의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성 선호비율(n=487)

		n	%
첫 자녀	아들 선호	254	52.2
	딸 선호	72	14.8
	어느 성이나 무방	159	32.6
둘째 자녀	아들 선호	213	43.7
	딸 선호	153	31.4
	어느 성이나 무방	114	23.4

<표 3> 남아선호 항목의 평균값<sup>1</sup>과 부모의 성별 차이 비교

항 목	M	SD	부(n=243)	모(n=244)	t
가문의 전통과 代지속	3.42	1.36	3.55	3.28	2.19*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호	3.37	1.41	3.37	3.36	0.08
아들 하나는 있어야	3.32	1.43	3.41	3.24	1.34
사돈에 몇몇하게	3.06	1.38	3.03	3.09	-0.46
노후 의지	2.90	1.40	2.77	3.07	-2.43*
딸만 둔 집 안됐다	2.84	1.36	2.94	2.73	1.69
오직 남자만 가장	2.73	1.27	2.82	2.64	1.60
아들>경제적 지지	2.73	1.20	2.74	2.73	0.14
아들>사회적 지지	2.70	1.31	2.65	2.75	-0.77
딸이 부모 모시면 이상	2.61	1.31	2.69	2.53	1.33
아들이 부부사이 강화	2.52	1.32	2.50	2.54	-0.33
아들>정서적 지지	2.51	1.17	2.47	2.54	-0.60
아들 교육 더 시켜야	2.24	1.26	2.27	2.21	0.48
잘난 딸보다 못한 아들	1.71	1.07	1.65	1.77	-1.28

1. 1점은 '매우 반대', 5점은 '매우 동의'

더욱 중요한 남아선호의 이유인데 반해(부 3.55, 모 3.28,  $t=2.19, p<.05$ ), 어머니는 '노후에 의지하지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가 아버지에 비해 더욱 중요한 남아선호의 이유로 나타났다(부 2.81, 모 3.00,  $t=-2.43, p<.05$ ). 이 결과를 보면 아버지들의 남아선호배경은 가문과 전통을 더욱 중시하는데 기초를 둔데 비해, 어머니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유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 남녀 사이의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 연구 결과는 Cain(1981), Lee(1995)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보여진다.

### 3. 남아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아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했다(표 4). 단계 별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첫째 및 둘째 자녀 성 선호, 현재 아들 및 딸의 수, SPS점수,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대치였다. 분석결과 이 가운데 4개가 유의하게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남아선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변수는 현재 아들의 수, 첫 자녀 성 선호,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대치, 소득수준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아들의 수가 많을수록, 첫 자녀의 성 선호가 아들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대치가 아들을 더 후대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아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남아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남아선호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실제로 현재 아들의 수가 많으며, 첫 자녀로서 아들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부모가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길렀으며 아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경제적 기대치가 딸보다 높게 자신을 양육했다고 보고했으며,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남아선호도에 대한 설명력은 11%로 나타나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아선호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V. 결론과 시사점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북과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자녀 성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 선호에 있어서 각각 딸보다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첫 자녀가 남아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2.2%인데 비해, 딸을 희망하는 경우는 14.8%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성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은 43.7%로 여전히 높았고 딸을 선호하는 비율은 31.4%에 그쳤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의 성이 무엇인지 개의치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첫 자녀의 경우 32.6%, 둘째 자녀의 경우 23.4%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남아선호의 이유로서 다분히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뚜렷한 현실적 이익이 있어서라기보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막연히, 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우세를 보였고 특히 남자의 경우 이것이 더욱 뚜렷했다. 여자의 경우도 명분이 우세했으나, 남자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유로서 '노후에 의지하기 위해 아들을 선호'한다는 경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아선호의 이유로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Cain(1981)의 주장과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Vlassoff(1990) 등의 주장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버지들에 비해 어머니들이 노후의지를 더 중요시하지만, 전체 응답의 경향은 경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남아선호 현상은 개인적인 특성보다 전통을 중시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인의 남아선호는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연유하기보다는 사회

〈표 4〉 남아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n=487)

독립 변수	b	$\beta$
현재 아들의 수	3.16	.22***
첫 자녀 성 선호 <sup>a</sup>	-2.10	-.17***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대치	-.27	-.13**
소득수준	.57	.12**
절편	40.44	
R <sup>2</sup>	.11**	

a 1. 아들, 2. 무관, 3. 딸

\*\*\*  $p<.001$ , \*\* $p<.01$



전반의 분위기, 사회문화적 전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4개의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아들의 수가 많을수록, 첫 자녀로 아들을 선호할수록, 자신의 부모가 아들을 후대하는 양육태도와 기대치를 가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남아선호에 대한 설명력은 11%로 나타나서,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해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성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직 출산률 저하에만 몰두한 결과 남녀 성비의 균형과 같은 문제를 배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나친 남아선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가 지향하는바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 아들·딸의 차별 없는 양육과 지지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가정에서 먼저 남존여비의 낡은 가치관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가족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사회단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세대의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사이 및 자녀사이에 작용하는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가족관계의 폐해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라나는 자녀세대에게도 「결혼과 가족생활」, 「예비부모교육」 등의 강의나 단기프로그램을 통해 남아선호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건강한 자녀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성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으로서 호주제의 폐지, 여성 취업시 성 차별적인 여러 가지 관행(채용, 임금, 업무, 승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에게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아선호를 현실적으로 강화시키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와 남아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유산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 여성의 건강보호는 물론 남아선호에 수반되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성비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점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인구교육은 미래의 인구 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자라나는 세대의 인구관을 바르게 확립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김옥춘, 1996).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소자녀, 소가족을 선호하고 높은 남아선호로 인해 성선택적 출산이 늘어나고 전체적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통계청, 2000) 이로 인해 인구구조가 성비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의 인구관,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합리적인 인구관을 갖도록 학교 인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태현, 1993). 강력한 남아선호로 인해 태아의 성감별과 성선택적 인공유산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출생성비가 왜곡되고 출산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구관을 길러주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1. 공세권·조애저(1992). 한국에서의 출산형성과 출산 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공세권·조애저(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옥춘(1996). 국가와 성통제: 80년대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을 통해 본 남아선호사상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4. 김용미(1998). 필리핀 기혼 여성의 남아선호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25-38.
5. 김정련(1993). 서울지역 부인들의 남아선호사상과 출산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6. 김태현(1993). 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7. 박재빈·조남훈(1984). 성 선택으로 인한 과잉 출생

- 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4(1), 3-19.
8. 서문희(1992). 한국부인의 자녀관 결정요인. 「1991년 출산력 조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이흥탁(1986). *여성사회학*. 서울: 법문사.
  10. 조남훈·서문희(1994). 성비의 불균형 변동 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최재석(1983). *한국 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12. 통계청(1999). 1997 인구동태 통계연보.
  13. 통계청(2000). 1999 인구동태 통계연보.
  14. Arnold, F., Kuo, E. C.(1984). The value of daughters and sons: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preferences of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2), 299-318.
  15. Cain, M.(1981). Risk and Insurance: Perspectives on fertility and agrarian change in India and Banglade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7(3), 435-474.
  16. Cain, M.(1991). Widows, sons, and old-age security in rural Maharashtra: A comment on Vlassoff. *Population Studies*, 45(3), 519-528.
  17. Edlund, L.(1999). Son preference, sex ratio, and marriage patter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6), 1275-1304.
  18. Goodkind, D.(1999). Do parents prefer sons in North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30(3), 212-218.
  19. Hussain, R., Fikree, F. F., Berendes, H. W.(2000). The role of son preference in reproductive behavior in Pakista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8(3), 379-388.
  20. Kang, Y.S., Cho, W.K.(1959). The sex ratio at birth of the Korean population. *Eugenics Quarterly*, 9, 187-195.
  21. Larsen, U., Chung, W., Das Gupta, M.(1998). Fertility and son preference in Korea. *Population Studies*, 52(3), 317-325.
  22. Lee, S. Y.(1995). The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sex preferenc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maic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3. Mason, K. O.(1993). Norms relating to the desire for children In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Vol.1, Eds. Bulatao, R. A., Lee, D. New York: Academic.
  24. Thomas, N. H., Mu, A. P.(2000). Fertility and population policy in two counties in China, 1980-1991.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2(1), 125-140.
  25. Vlassoff, C.(1990). The value of sons in an Indian village: How windows see it. *Population Studies*, 44(1), 5-20.
  26. Yadav, S. S., Badari, V. S.(1999). Gender preference and anxiety of pregnant woman. *Indian Journal of Social Work*, 60(4), 538-551.